

그린란드, 트럼프 야욕에 “나토 틀에서 방어 노력 강화”

나토 수장 “북극 안보 실질적 후속 조치 방안 논의 중”

EU 방위 수장 “미국이 군사적 장악하면 나토 종말”

그린란드는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 아래서 북극 영토의 방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미국

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며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76년 역사의 나토 동맹을 뒤흔들고 있다.

위기에 빠진 나토 수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뷔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동맹국 모두

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

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을 비롯해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U도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살렌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그것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메테 프레데리센 덴마크 총리의 경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덴마크의 요청이 있으면 EU가 병력·군함과 드론 방어 역량 등 군사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미군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는 않는다면,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유럽이 미국의 도움에 기댈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할 경우 독립적으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이란 반정부시위…美, 협상·군사개입 저울질

사망자 6000명설…궁지 몰린 이란, 미국 물밑접촉

이란의 반정부시위 유혈진압에 미국 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구체화하면서 중동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옵션을 동시에 고심하며 이란의 교역국을 제재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현지시간) 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합계한 것이라며 “일부 주선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본인이 설정한 ‘레드라인’(위반 대가를 물어야 할 기준)을 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며칠 동안 되풀이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란은 미국에 대

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앤솔리스트에 따르면 아바스 아리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연락해 소통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아리그치 장관과 윗코프 특사의 대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다봤다. 아리그치 외무장관은 아랍권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지 않을 용의가 있으니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군사적 타격을 재고해달라는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플로리다에서 베이커판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테헤란 시내의 반미 벽화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 거리에 그려져 있는 반미 벽화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